

# 국립대학교 교사 입면의 디자인 적용현황 연구

- 대구지역의 K대학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esign in the Facade of the National University

- Focused on the k-National University in Deagu -

Author 서희숙 Seo, Hee-Sook / 정희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application of the facade design of k-national university in deagu. The subjects of the study examined 75 buildings from the 117 university buildings in main campus. The analysis items is analyzed by several elements; flat and sloping roof, main entrance, design principle, style of architecture, finishing materials. and characteristics of design surveyed by analysis ite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1950s, 2 subjects have shown conflicting characteristics except brick finishing materials. In he 1960s, flat make up 75% of a whole. centrality in main entrances occur. but have an asymmetrical. during this period vertical motif have been underlined by repetition of column. stone has application to main adminstration building. The buildings in the 1970s were so characteristics of modern architecture by painting and flat except main entrance at the center of facade. In the 1980s, position of main entrance have a corner of a wall. finishing materials of a wall were beginning to use stone, glass and metal. The buildings in the 1990s and 2000s are looking a three-dimensional composition by rhythm of superimposition and segmentation and all finishing materials of analysis items are in use.

Keywords 국립대학교, 입면, 디자인, 대학교사, 맥락  
National University, Facade, Design, University Building, Context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곳이다. 대학의 구성원들을 담고 있는 교사시설은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인 교육기본시설, 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인 지원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인 연구시설,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로 구성<sup>1)</sup>되어 있다.

대학 교사는 국가 또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기도 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과 사회의 변화는 대학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대학 건

물 디자인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준공년도가 오래된 대학 캠퍼스는 구성원들의 변화 혹은 시간경과에 따른 교사의 신축, 낡은 교사의 증축, 개축 등의 리모델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건물은 신축, 개축과 증축에 의한 기존의 건물과 새로운 건물들의 공존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입면을 띠고 있고 이러한 입면 디자인은 각 연대에 적용되었던 입면의 디자인 요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한정된 대학 캠퍼스 내의 건물 입면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미적인 역할의 추구이기도 하나 반면 건물의 증가에 의한 심리적, 물리적 복잡함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학 캠퍼스의 신축건물은 기존의 주변 건물들을 고려하여 입면의 연계성으로 캠퍼스 내 통일성과 조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각 건물의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여 건물과 건물 간의 맥락<sup>2)</sup>을 고려한다면 시각적, 심리적 복잡함을 완화

2) 김홍기, 건축조형디자인론, 기문당, 2002, p.25

건축물은 이웃한 건물이나 주변 환경과의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좋고 나쁨이 평가된다. 건물은 홀로 존재하지 못하며 주변 환경에 순응하여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1) www.mest.go.kr, "2008 학교법인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요령"의 <별표 2>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관련)을 발췌함.

하며, 대학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을 표출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사의 입면에 나타나고 있는 각 연대의 디자인 변화과정, 입면의 구성요소별 적용시기 및 적용정도를 파악하고, 구성요소에 의한 건물과 건물 상호연관성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대학 내 건물과 건물들의 상호연관성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대학 교사 입면 디자인의 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대구 및 대구권역에 있는 종합대학교<sup>3)</sup> 중 설립연도가 가장 오래되어 연대별 대학 교사의 현황 파악이 용이한 국립대학교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건물의 입면 중 가장 디자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띠는 정면부를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단행본과 선행연구의 문헌 고찰이 이루어졌으며, 문헌 고찰을 토대로 입면디자인의 분석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대학교 홈페이지의 캠퍼스소개에 제공된 112개동과 현황조사에서 파악된 건물을 포함한 총 117개동 중 최종 조사대상은 75개동으로 선정하였다.<표 2>

셋째, 2010년 2월에 3차례 조사대상 대학교를 방문하여 수집된 사진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대학의 75개동 교사의 입면에 대한 <표 1>의 분석항목을 적용하여 캠퍼스 내 건물의 디자인 적용 현황을 파악한다.

## 2. 이론적 고찰

### 2.1. 대학교의 역사 및 정의

대학의 역사는 중국 주나라의 국학기관이나 BC 387년 경 플라톤이 설립한 아카데미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대학은 중세 말경에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대학은 이탈리아의 살레르노대학(의학)과 볼로냐대학(법학), 프랑스의 파리대학으로서 12세기에 창설되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1167년)과 케임브리지대학(1209년)은 초기 대학 가운데 전형적인 형태이며 오늘날까지 그 역사와 전통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

구려 소수림왕 2년에 세워진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의 근원이며,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배위량이 1897년 10월에 개설한 숭실학당이 1905년 대학으로 승격되면서 한국 최초의 대학<sup>4)</sup>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시기에 세워진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해방이후에 설립되기 시작하여<sup>5)</sup> 현재에 이르렀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대학 구성원간의 인간관계실현, 공동체의식부여 등의 지적공동체로 형성된 하나의 사회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sup>6)</sup>이다.

### 2.2. 건물의 입면디자인

디자인이란 좁은 의미로는 보다 사용하기 쉽고 안전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조하는 조형행위를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어떤 목적을 향해 계획을 세우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표현하는 행위로서 인간생활에 필요한 대상물에 미적가치와 예술성을 부여하는 창조행위로 순수예술과는 달리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아이디어 발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적합한 조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sup>7)</sup> 그 중에서도 건축 디자인은 미적측면과 함께 기능적, 구조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아울러 시대적·사회적·문화적 이해가 요구되어지며, 이러한 여러 측면은 건물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물의 입면 즉, 벽은 건물내부의 용도를 외형으로 표출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건물의 용도를 인식시키고 이미지를 남게 하는 역할을 하며, 건물의 미적 아름다움과 공간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벽은 프라이버시와 영역 성을 확보해 주며, 단순한 물리적 실체에서 벗어나 상징적 의미까지 부여하기도 한다. 건축에 있어서 벽은 영역과 영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디자인 도구이며, 어떤 특정영역에 대한 장소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벽체에 부여되는 장식과 단순함의 정도에 따라 건축양식이 판별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벽에는 개구부와 기둥 등의 요소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벽이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면, 개구부는 내부와 외부의 상호관입을 유도한다, 따라서 벽면에 배열되는 개구부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건물 입면의 미적 가치가 달라지며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중심성이 추구되기도 한다.

건축에서는 문백 혹은 맥락이라고 한다.

3) 계명대(1954.3.20, 미국북장로교에서 설립한 계명기독교학관), 경일대(1976. 영남공업전문학교로 개교, 1997.3 교명변경), 대구대(1956.5. 한국사회사업학교로 설립하여 198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대구가톨릭대(1914, 유스티노신학교와 1952년 효성여자초급대학이 1994년 통합된 후 2000.5 현재 교명으로 변경), 대구한의대(1980 대구한의과대학으로 개교후 2003.5.31 교명변경), 영남대(1947년 설립된 대구대학교와 1950년 설립된 청구대학이 합병되어 1967년 설립), 네이버 백과사전

4) 서희숙, 대학교 본관 파사드에 나타난 연대별 디자인 표현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4호, 2010, p.12, 네이버 백과사전

5) 강철민 외 2명, 대학교 본관 파사드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8호, 2000, pp.1-2

6) 문지원·하재명, 캠퍼스 보행자동선 개선을 위한 보행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K대학 캠퍼스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10호, 2002, p.201

7) 도규환, 건축조형의장, 도서출판서우, 2002, pp.10-11

건물의 정면을 의미하는 파사드는 정면과 형태의 합성어로 건물의 기능과 중요성을 전달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서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표현하고 장식의 효용성과 기능성을 구현한다.<sup>8)9)</sup>

### 3. 분석항목 도출 및 분석방법

#### 3.1. 분석항목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강철민(2000)은 파사드의 구성요소를 지붕부, 벽면부, 기단부로 구성하였으며, 지붕부는 평지붕, 박공지붕, 혼합지붕, 절충지붕 구분하였다. 벽면부는 형태유형과 창호부, 현관부로 구분하였다. 벽면은 건축에 있어서 보이는 요소인 동시에 생활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요소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안에서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구성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벽면부의 형태유형은 평면(격자, 단일벽면, 분절, 대립)과 곡면으로 분류하였고, 창호부는 수직, 수평, 혼합, 피막, 격자, 현관부는 평, 돌출, 후퇴, 필로티로 구분하였다. 기단부는 계단, 계단과 램프혼합형, 단차로 구분하여 형태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파사드의 형태를 박공지붕, 페디먼트, 열주의 고전요소와 자유스런 평면, 필로티, 평지붕의 모더니즘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김홍기(2002)는 디자인의 원리를 비례, 대칭(대칭적 균형, 비대칭적 균형), 대비(건물과 자연과의 대비, 형태적 대비, 솔리드와 보이드의 면대비), 리듬(매스의 중첩과 적층, 매스의 분절), 스케일과 척도로 구분하였다. 특히 리듬의 형성요인에 있어서는 매스의 중첩에 의한 리듬, 기둥과 벽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벽과 기둥의 분리 혹은 일치하여 일부 돌출되어 표현되는 구조적 리듬, '브리드 솔레이유'라는 차양 벽에 의한 개구부의 리듬, 매스의 분절에 의한 리듬으로 구분하였다. 리듬의 조형적 효과로는 열주에 의한 규칙적 리듬과 변화, 다양성에 따른 낭만적 감정을 표출하는 불규칙한 리듬으로 분류하였다. 형태를 구성하는 법칙으로 기하학적 구성, 유기적 구성, 선형구성으로 분류하였다. 벽의 조형적 특성은 영역성, 장소성, 방향성, 단순성, 중력성, 건축적 양식, 면의 겹침과 깊이감, 벽체와 개구부, 벽과 기둥관계의 중요성으로 구분하였고, 지붕의 조형적 특성은 문화적조건, 구조방식, 기후조건 등에 의하여 지붕의 디자인이 변화된다고 하였다.

김정재(2002)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원리는 통일(단순, 반복, 조화, 정적, 동적), 비례, 균형(중고형 대칭, 양고형 대칭, 좌우대칭, 동형의 무게 비대칭, 이형의 비대칭), 대비(형태, 크기, 색채 및 질감, 방향, 위치, 공간, 무게), 리

듬, 조화로 구분하였다. 형태는 인간의 사고활동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이고 순수한 개념적 형태로 도식적인 완전성과 순수성을 지닌 추상적인 형태와 현실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실물이 가진 형태, 즉 자연물이 가진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형태인 구상적인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인 조형이론의 기본형인 원, 삼각형, 사각형은 구, 원통, 피라미드, 육면체 등의 이상적인 입체가 되며 그 형태의 삭제 혹은 부가에 의하여 건물 전체 혹은 입면의 형태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신성영(2004)은 디자인의 구성 원리를 조화와 파조, 대비, 통일과 다양성, 반복, 리듬, 점이, 균형과 대칭, 비례, 질서규범, 강조, 주조, 장식적으로 구분하였고 건축에 개성을 부여하고 단조로움을 벗어나 변화와 통일을 갖출 수 있도록 대조, 크기, 반복의 원리를 적용한다.

#### 3.2. 분석항목 도출

조사대상 대학교 교사의 연대별 입면 디자인의 유형 요소, 구성요소의 적용정도 및 타 건물과의 디자인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현황조사를 토대로 다음 <표 1>과 같이 분석항목을 도출하였다.

강철민은 파사드를 지붕부, 벽면부, 기단부로 분류하였으나 디자인 경향이 미미한 기단부(계단, 계단+경사로, 단)는 제외하고 지붕부, 벽면부를 분석항목으로 정하였다. 지붕부에는 평지붕과 물매지붕에 대한 지붕의 유무와 계단실, 돛지붕 혹은 장식적인 역할에 의한 옥상부의 돌출로 전체가 아닌 일부에 지붕이 있는 경우를 기타 요소로 분류하였다.

벽면부의 최종 분석항목을 주출입구, 디자인원리, 형태적 구성방법, 건축양식, 재료로 분류하였다. 주출입구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 주는 개구부이며 건물 입면 디자인의 주요한 요소로서 위치, 형태, 재료로 분류하였다. 주출입구의 재료는 입면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였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였다. 디자인원리는 대칭, 리듬, 반복으로 구분하였다. 대칭은 대칭의 유형을 대칭적 균형과 비대칭적 균형으로 분류하는 김홍기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고 대칭성이 없는 건물의 입면을 비대칭이라 분류하여 포함하였다. 형태적 구성방법은 김홍기의 기하학적 구성(격자형 구성), 유기적 구성(자유로운 형태), 선형구성(수평적, 수직적 구성)으로 구분하였다. 기하학적 구성은 평면구성과 입면구성으로 분류하였다. 평면구성은 격자형 구성으로, 입체구성은 김정재의 이상적인 입체를 참고하였다. 건축양식은 강철민의 고전요소와 모더니즘적 요소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고전양식은 현황에서 나타난 아치, 멀론과 총안을 포함하였다. 벽면부의 재료는 현황조사에서 나타난 마감 재료를 파악하여 항목에 포함하였다.

8) 김홍기, Op.cit., 2002, pp.268-286

9) 강철민 외 2명. Op.cit., 2000, p.2

### 3.3. 분석방법

도출된 분석항목은 최종 조사대상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캠퍼스 안내와 현황조사에서 소개된 117개 교사 건물 중 대구시에서 주관하여 준공된 테크노파크, 모바일테크노 빌딩 2개동, 리모델링 공사 중인 화학관, 생활과학대학 2개동, 그 외 온실, 창고, 차고, 수위실, 화장실, 운동장과 관련된 시설 등을 제외한 총 75개동<표 2>을 대상으로 입면 디자인의 연대별 변화과정 및 교사 간 상호연관성을 파악한다.<sup>10)</sup>

첫째, <표 1>에서 도출된 분석항목을 토대로 교사의 입면에 나타나고 있는 연대별 디자인의 특징을 파악한다.<표 3, 표 4>

둘째, 분석항목의 연대별 적용현황을 파악하여 입면의 디자인 요소의 적용시기 및 그 변화 흐름을 파악한다.

<표 1> 분석항목

구분	내 용				
지붕 부	지붕의 유무(있음: 물매지붕, 없음: 평지붕)				
	기타 요소의 유무(계단실에 의하여 옥상부가 돌출되어 디자인된 부분 <sup>11)</sup> , 돛지붕 등과 같이 지붕 전체가 아닌 일부가 돌출된 경우)				
벽면 부	주출 입구	위치	중심부	비중심부	
			모서리		
		형태	합입형		
	벽면일체형				
	재료	돌출형	지붕형(캐노피, A)		
			지붕과 기둥이 있는 일반형(B)		
		높이강조	주출입구의 높이가 2개 층 이상		
		동일	벽면부의 재료와 동일함		
	디자인적 원리	대칭	비대칭적 균형	완전한 좌우대칭인 경우	
			비대칭	출입구, 창, 매스의 일부형태 등은 비대칭이나 전체 입면에 좌우대칭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	
리듬		중심	기존형태에 다른 형태를 겹쳐 덧씌우는 방법, 입체감과 깊이감을 강화하며 동시성, 침투성, 불연속, 투명성, 다층의 의미를 지님		
		적층	층층이 쌓아서 올리는 방법		
		분절	건축물의 입면에 요철을 주어 수직적 리듬감을 줌		
반복		기둥	기둥의 돌출에 의한 구조적 리듬(기둥과 벽면의 분리형, 기둥과 벽면의 일체형)		
		개구부	창문부분에 돌출한 자양 벽의 수직패턴		
형태적 구성 방법		기하학적 구성	평면구성	격자형	
			입체구성	구, 원통, 피라미드, 육면체의 형태가 있는 구성	
		유기적 구성	비격식(자유분방·자율적)과 자연미		
	선형 구성	낭만적 조형의 표현(곡면적인 형태)			
건축 양식	고전	패턴먼트, 열주(기둥), 아치, 열론과 종안 벽			
	모더니즘	필로티, 평지붕			
재료	벽돌, 석재, 타일, 도장(뽀칠재, 드라이버트), 유리(커튼월), 금속재(알루미늄판)				

- 10) 교사 3개동은 리모델링이 완공되었으나 준공년도를 우선시하였다. 1995년에 준공된 법과대학은 2003년 리모델링에 의하여 주출입구 위쪽 벽면부에 박공형태의 패턴을 지우고 옥상부에 열론과 종안 벽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붕부의 기타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법과대학은 1995년을 기준으로 조사함.
- 11) 계단실이 후면부에 위치하여 정면부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는 제외

셋째, 분석항목 중 조사대상 대학교 입면의 디자인에 대한 적용현황을 토대로 건물과 건물과의 디자인 상호연관성을 알아본다.<그림 7>

## 4. 조사대상대학교의 개요 및 현황분석

### 4.1. K대학교의 개요

1926년 설립된 대구사범학교, 1932년 설립된 대구의학전문학교, 1944년 설립된 대구농업전문학교의 3개 대학이 모체가 되어 1946년 국립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가 1951년 현재의 학교명으로 개편하였다.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총 24만여 평 규모(782,040㎡)의 메인캠퍼스, 치의과대학이 있는 동인동캠퍼스(27,765㎡), 삼덕동캠퍼스(14,441㎡), 상주캠퍼스(994,044㎡, 상주대학교에서 통합)와 그 외 실습장, 병원, 부속학교, 박물관, 농장, 수련원 등이 있다. 메인캠퍼스의 건물배치는 본관을 중심으로 남측에는 공학계열, 동측에는 사회계열, 서측에는 자연계열 및 체육계열, 북측에는 인문계열 건물이 배치되어 있고, 본관 주변에는 도서관, 도서관휴게실, 일정당 등이 있다. 15개 단과대학(인문사회, 자연과학, 경상, 법과, 공과, 농업생명과학, 예술, 사범, 수의과, 생활과학, 의과, 치과, 간호, IT), 3개 학부(전자전기컴퓨터, 글로벌인재, 자율전공부)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학과 간 협동과정, 의학·치의학전문

<표 2> 조사대상 대학교의 교사현황

준공년도	교사명	준공년도	교사명	준공년도	교사명
1956	박물관	1981	자연과학대학	1996	기숙사G동
1958	교육대학원		2합동강의실	1997	기숙사D동
1960	본관		조형관		농대사과센터
1961	제1과학관		취업정보센터		조소동(07)
1965	농대1호관	1982	기숙사B동	대학원동	
1968	교수연구동	1983	대강당	1998	종합정보센터
1968	교양과정동		사회과학대학		도서관휴게실
1971	사범대학	1984	예술대학(95)	1999	공대11호관
	출판부	1986	학군단		공대12호관
1972	제1체육관	1987	환경과학연구소	2000	기숙사E동
	공대1호관		정보전산원		기숙사F동
1975	공대2호관	1988	기숙사C동		2002
	공대3호관	1988	기숙사문화관	제2체육관	
1976	공대4호관	1989	기숙사A동	2004	학생종합서비스센터
	공대5호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반도체연구동
1977	제2과학관	1990	생물관	2004	창업보육센터
	공대13호관		공대8호관		동물병원
1978	체육관연구동	1992	4합동강의실	2004	공동실습실습관
	경상대학		수의과대학		외국어교육관
1979	인문대학	1993	복지관	2005	수영장
	공대6호관	1994	농대3호관	2006	향토생활관
1980	공대7호관	1995	공대9호관	2006	평생교육원
	농대2호관		공대10호관	2007	법학전문대학원
1981	중앙도서관	1995	우림교육관	2008	국제경상관
	복현회관		법과대학(03)	2009	기숙사(침성관)

\* (00) 리모델링된 년도

하고 정면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만 조사함.

대학원이 있다.<sup>12)</sup>

## 4.2. K대학교 교사 입면의 디자인 적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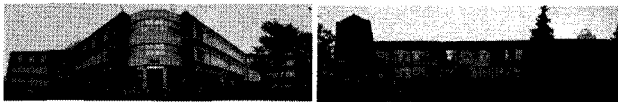
### (1) 연대별 교사 입면의 디자인 적용현황

조사대상 대학교의 연대별 입면디자인의 적용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은 다음 <표 3>과 <표 4>와 같다.

#### 1) 1950년대

1950년대에 준공된 건물 2개동의 지붕형태는 출입구의 박공지붕과 평지붕의 혼합형인 교육대학원과 평지붕의 박물관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대학원은 주출입구의 위치가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형태는 합입형이며, 전체 벽면의 형태는 평면적이거나 육면체의 출입구 매스가 돌출되어 있는 대칭성이 없는 비대칭을 이루고 있다. 박물관의 전체 매스는 M자 배치이며, 좌우 창의 형태는 비대칭이나 중심부에 출입구를 두며 좌우대칭의 경향을 띠는 비대칭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시기의 입면 재료는 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강조부분에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1950년대에는 주출입구와 벽면부의 재료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입면의 마감재는 벽돌이 적용되었으며 분절에 의한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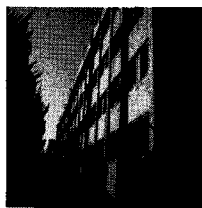


<그림 1> 1950년대 건물현황,  
(좌)박물관, 1956, (우)교육대학원, 1958

#### 2) 1960년대

1960년대 준공된 4개동의 지붕은 돔과 박공이 있는 본관을 제외하고 평지붕으로 구성되었다. 주출입구의 위치는 모두 중심부에 있으며, 입면은 좌우대칭에 의한 대칭적 균형을 보이고 있다. 50년대와 같이 주출입구의 재료는 벽면과 동일하며, 벽면과 일체화된 기둥의 반복적 요소로 인한 수직구성(표 5-수직, 제1과학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형태적 구성방법은 평면구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벽면의 마감 재료는 석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본관의 전체 정면부에는 석재로 마감되었으나(표 5-박공, 높이강조) 제1과학관은 건물의 양쪽 끝부분에 석재를 사용하여 측면부를 강조하여 장식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주출입구가 입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벽면부와 동일한 재료의 적용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1960년대  
건물현황,  
교수연구동, 1968

#### 3) 1970년대

모든 건물의 지붕이 평지붕이며 주출입구는 78.5%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출입구의 형태는 캐노피로 되어 있는 돌출형이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다. 주출입구의 지붕을 2층 이상에 두어 높이를 강조한 돌출형태는 1979년 인문대(표 5-높이강조)를 시작으로 80년대 준공된 공대 6·7호관, 농대 3호관에 적용되고 있다. 리듬은 전 년대에 비하여 적용빈도가 다소 낮으나 창문에 설치된 차양 벽에 의한 반복적 원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형태적 구성방법은 건물 입면의 전체(표 5-수평, 사범대학) 혹은 일부(계단실 등, 표 5-수평, 경성대학)에 스펀드럴에 의한 수평적 요소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고전양식의 모티브를 적용한 건물은 아치 형태를 적용하고 있는 인문대 1개동에 국한되어 있다. 그 외 92.9%의 건물은 평지붕을 적용하고 있다.

1970년대는 평지붕과 입면의 도장 마감으로 모더니즘적 건축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1970년대 건물현황,  
공대3호관(1976)

#### 4) 1980년대

평지붕이 우세하던 1970년대와는 달리 이 시기 건물 지붕의 20%는 물매지붕이 적용되고 있다. 주출입구의 위치는 중심부가 우세하던 이전과는 달리 중심부와 비중심부의 비율이 동일(40%)하게 나타나고 있고, 두면이 접하는 모서리부분에 출입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출입구의 형태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돌출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출입구의 재료는 벽면과 주출입구의 재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던 1970년대와는 달리 1980년대는 이 시기의 전체 40%의 건물에 벽면과 주출입구의 재료를 달리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칭성이 없는 비대칭이 우세한 것(60%)으로 조사되었다. 평면적인 벽면을 분절(70%)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고, 개구부에 의한 반복적 원리가 타 연대에 비하여 높게 적용(20%)되고 있다. 형태적 구성방법은 이전의 평면구성이 우세한 것과 달리 입체구성이 적용되고 있다. 재료는 석재, 유리, 금속재가 미비하지만 사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도 1970년대와 같이 평지붕에 의한 모더니즘적 건축양식이 우세하나 도장만 적용되었던 1970년대와는 달리 벽돌이 입면의 마감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4> 1980년대 건물현황,  
정보전산원, 1987

12) 경북대학교 홈페이지의 대학/대학원 소개란 참고



5) 1990년대

1980년대에는 20%정도의 건물에 물매지붕이 적용되어 평지붕의 적용빈도가 다소 낮아졌으나 1990년대에는 94.7%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 조사대상 14개동의 지붕은 정면부에서 볼 때 완전히 수평적 형태의 평지붕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계단실을 정면부에 두어 평지붕의 단조로움에 다양성과 인지성을 더하고 있다.(표 5-원통, 복지관, 공대 11호관) 주출입구의 중심부 배치는 1980년대보다 적용빈도가 높게 조사되었고, 높이강조형은 2층 높이가 주를 이루던 이전과는 달리 출입구의 높이를 더 높게 강조하고 있다.(표 5-높이강조형, 기숙사E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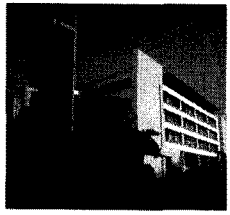


<그림 5> 1990년대 건물현황, 대학원동, 1997

1990년대는 이전과 같이 평지붕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입면의 단조로움을 벗어나고자 시도하고 있다.

6) 2000년대

2000년대에는 물매지붕의 적용빈도가 다소 높아졌고, 1990년대와 같이 계단실이나 옥상부의 장식적인 요소에 의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출입구는 비중심부의 배치가 81.2%로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심성이 강조된 대칭적 균형은 1개동만 적용되어 좌우 대칭성을 띠는 건물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중첩, 적층, 분절에 의한 리듬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던 입체구성이 93.7%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주출입구는 벽면과 재료를 다르게 하며, 곡선의 유기적 구성이 나타나고 있다.(표 5-법학대학원) 또한 재료는 벽돌, 석재, 타일, 유리, 금속재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림 6> 2000년대 건물현황, 외국어교육관, 2005

2000년대의 입면은 대칭성이 없는 비대칭, 분절과 입체구성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분석항목별 연대별 적용현황

분석항목의 연대별 적용현황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1) 지붕

물매지붕은 1950년대에 가장 많이 적용되었고, 1970년대의 모든 건물에는 평지붕이 적용되었다.(표 5-수평, 2합동강의실) 건물의 매스는 박스 형태를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평지붕의 적용빈도가 다소 감소되고 있다.

2) 주출입구

주출입구의 위치는 1960년대 중심부에 위치한 형태(100%)가 우세하였으나 이후 점차적 감소하여 2000년대

<표 4> 입면디자인의 연대별 종합 분석

(단위:%)

구분	분석항목	연대								
		50	60	70	80	90	2000			
지붕	지붕	있음(물매지붕)	a	50.0	25.0	-	20.0	5.3	18.8	
		없음(평지붕)	b	50.0	75.0	100	80.0	94.7	81.2	
	기타요소	c	-	5.00	14.3	15.0	26.3	43.8		
주출입구	위치	중심부	d	50.0	100	78.5	40.0	52.6	18.8	
		비중심부	e	50.0	-	21.4	40.0	31.6	81.2	
		모서리	f	-	-	-	20.0	15.8	-	
	형태	합입형	g	50.0	-	-	30.0	31.6	43.8	
			일체형	h	50.0	-	7.1	10.0	5.3	-
		돌출형	A	i	-	25.0	30.0	10.0	26.3	25.0
			B	j	-	75.0	35.7	50.0	26.3	37.5
	높이강조형	k	-	25.0	7.1	25.0	15.8	18.8		
	재료	벽면부와 동일	l	100	100	92.8	60.0	73.6	68.8	
		벽면부와 다름	m	-	-	7.1	40.0	26.4	31.2	
	대칭	대칭적 균형	n	-	-	35.7	35.0	31.6	6.3	
			비대칭적 균형	o	50.0	75.0	14.3	5.0	42.1	-
		리듬	비대칭	p	50.0	25.0	7.1	60.0	26.3	93.7
			중첩	q	50.0	25.0	14.3	25.0	47.3	68.8
적층			r	-	50.0	14.3	20.0	15.8	31.3	
분절			s	100	50.0	35.7	70.0	57.9	93.7	
기둥	t	-	75.0	28.6	50.0	10.5	12.5			
개구부	u	50.0	-	7.1	20.0	10.5	6.3			
형태적 구성방법	가하	평면구성	v	50.0	75.0	50.0	45.0	31.6	6.3	
		입체구성	w	50.0	25.0	42.8	55.0	52.6	93.7	
	선형	유기적 구성	x	-	-	-	-	-	18.8	
		수직구성	y	-	50.0	35.7	5.0	5.3	-	
수평구성	z	-	-	21.4	15.0	5.3	-			
양식	고전	aa	50.0	25.0	7.1	20.0	31.6	12.5		
	모더니즘	ab	50.0	75.0	92.8	80.0	68.4	87.5		
재료	벽돌	ac	100	75.0	21.4	65.0	57.9	50.0		
	석재	ad	-	50.0	-	15.0	15.8	37.5		
	타일	ae	-	-	-	-	5.3	12.5		
	도장	af	50.0	75.0	100	65.0	42.1	6.3		
	유리	ag	-	-	-	10.0	10.5	25.0		
	금속재	ah	-	-	-	5.0	5.3	37.5		

• [shaded] 분석항목별 적용빈도가 높은 연대  
• 100 : 연대별 적용빈도가 높은 분석항목

에는 비 중심부에 배치된 형태가 우세한 것(81.2%)으로 조사되었고, 모서리의 주출입구 배치는 1980~1990년대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에 준공된 2개동의 건물 주출입구에 나타나고 있는 형태는 합몰형과 돌출형으로 조사되었다. 1960년대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돌출형(B)의 주출입구가 75%적용되었고, 2000년대에는 주출입구가 벽면에서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 있는 합입형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디자인 원리

1950년대의 건물입면에는 분절에 의한 리듬이 우세하게 적용되었고, 1960년대에는 입면을 구성하는 창이나 출입구가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중심성이 있는 좌우 대칭적 경향을 띠는 비대칭적 균형과 기둥에 의한 반복이 각 75%로 우세하게 적용되었다.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분절에 의한 리듬이 타 리듬의 유형보다 강하게 적용되었고, 2000년대에는 대칭성이 없는 비대칭적 원리가 강(93.7%)하게 나타나고 있다.

4) 형태적 구성방법

수직적 구성은 벽면 기둥의 반복적 원리<표 1>나 재료의 구성방법에 의하여 나타나며 1960년대부터 2000년

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적용된 요소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기둥이 벽면에서 분리되지 않고 일부 돌출되어 수직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스펀드럴이나 기둥 모두 동일 재료와 동일 색상을 사용하여 수직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1980년대 이후에는 벽돌과 도장을 혼합하여 재료의 색에 의한 수직성이 강조되었고, 1990년대까지 이러한 수직성은 벽면 전체에 적용되었다. 2000년대에는 수직요소가 입면의 일부에 디자인 요소(표 5-수영장)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기숙사 건물은 돌출된 기둥에 의한 수직구성이 아니라 벽돌에 의한 패턴(표 5-기숙사F동)으로 수직성을 나타내고 있다. 수평적 구성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전반에 계단실 코어와 중심부 혹은 전체 벽면부(표 5-경상대학)에 적용되고 있다. 격자형 구성은 중앙도서관과 공대11호관과 같이 벽면 전체에 적용되기도 하고 복지관, 조소동, 제1학생회관과 같이 출입구 혹은 지붕을 강조하는 패턴으로 이용되어 2000년대 전반까지 적용되고 있다. 원통형태는 1970년대에 준공된 건물의 정면 모서리부분(표 5-공대5호관)에 적용되다가 1990년대부터 정면부를 강조하는 요소로 적용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형태적 구성방법 중에서 평면구성이 우세하게 적용(75%)되었으나 2000년대에는 입체구성의 적용(93.7%)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유기적구성이 입면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197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되었던 선형구성은 2000년대에 이르러 완전히 입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5) 양식

고전양식의 대표적인 요소인 박공(페디먼트)은 본관, 교육대학원, 기숙사에 적용되었고 아치 형태는 1990년 전반까지 주출입구, 지붕부, 벽면부 등에 적용되었다. 1995년 준공된 법과대학은 2003년 리모델링에 의하여 기존의 주출입구에 적용되었던 박공을 없애고 옥상부에 딸린과 총안 벽의 모티브를 적용하였다. 주출입구의 전면에 열주기둥을 두어 건물을 강조하는 방법은 1990년대 후반 종합정보센터를 시작으로 2006년 향토생활관에 적용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모더니즘의 경향이 우세한 가운데 고전양식의 모티브가 지속적으로 증감을 보이며 적용되고 있다. 1970년대에 7.1%의 고전적 모티브 적용은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건물의 입면에 31.6% 적용되었다가 2000년대에는 다소 감소(12.5%) 추세를 보이고 있다.

### 6) 재료

석재와 타일은 건물의 정면부 전체(표 5-본관) 혹은 모서리부분(제1학관), 주출입구(농대3호관)를 강조하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벽돌은 1960년대를 제외하고 1950년대부터 최근 건물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감 재료로 연대별 적용방법에 따라 입면에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출판부, 체육관연구동, 대강당, 환경과학연구소는 적벽돌의 고유색을 바탕색으로 하고 그 위에 흰색 도장으로 선적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과학대학 건물(1983년)과 기숙사 침성관(2009년)은 벽돌의 고유색을 이용하여 입면에 수직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기존의 색과는 다른 벽돌을 입면에 적용(표 5-향토생활관)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건물과 같이 다양한 색의 벽돌을 이용하여 매스의 적층 혹은 분절의 입체구성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유리과 금속재가 강의실, 연구실 등의 시설에 적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며 휴게실, 식당, 은행 등의 서비스가 행하여지는 건물이나 정보센터, 서비스센터 등에 적용되고 있다. 금속재료는 2000년대에 와서 이전보다 적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재료) 특히 이전에는 입면디자인에서 볼 수 없었던 청색의 금속프레임이 적용되고 있다. 대학원동(1997년)은 입면에, 공동실험실습관은 출입문의 캐노피와 문의 프레임에 적용되었고, 국제경상관은 측면부에 적용되어 입면을 강조하고 있다.

1950년대의 벽돌과 도장에 의한 입면 구성은 1960년대의 석재 사용(표 5-본관)으로 변화를 보였으며, 1970년대는 도장에 의한 마감처리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벽돌, 석재, 유리, 금속재의 재료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타일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벽돌은 1950년대부터 대학 교사의 입면에 지속적으로 사용된 재료로 조사되었다.

K대학의 건물 입면에 적용된 분석항목의 적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형태, 양식, 재료에 의한 적용시기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형태는 수직·수평·격자·원통·출입구의 높이강조형, 건축양식의 모티브는 박공·아치·열주, 재료는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청색의 도장으로 마감된 금속재와 벽돌에 의한 디자인 유행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 (3) 주변 교사와의 상호연관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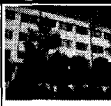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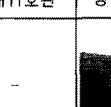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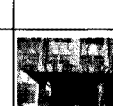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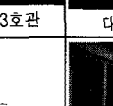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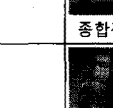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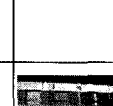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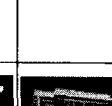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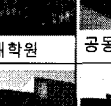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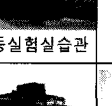
앞의 (2)항에 조사된 K대학의 입면에 나타나고 있는 유행시기가 명확한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주변 건물과의 상호연관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수직구성과 벽돌을 사용한 건물들은 캠퍼스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수직구성은 기둥과 벽면부에 동일 재료와 동일 색상을 사용하여 수직성이 강하게 표현되지 않았던(표 5-수직) 1960~1970년대와는 달리 1980년대 이후는 벽돌의 고유색에 의하여 강조되고 있다.

주변의 건물과 건물의 입면 마감재가 벽돌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타 재료와의 구성방법이나 벽돌의 고유색이 변화함에 따라 시각적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높이강조형·박공·아치의 형태는 주변건물을 고려하여 디자인되고 있다. 그러나 원통의 형태·청



<표 5> 교사 입면 디자인 요소의 연대별 적용현황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수직	 제1과학관	 교수연구동	 교양과정동	 제2과학관	 사회과학대학	 기숙사C동	 농대3호관	-	 수영장	 기숙사철성관
수평	-	-	 사범대학	 경상대학	 2합동강의실	-	-	-	-	-
형태	-	-	-	-	 중앙도서관	-	 복지관	 조소동	 1학생회관	-
원통	-	-	-	 공대5호관	-	-	 복지관	 공대11호관	 창업보육센터	 법학대학원
높이 강조	 본관	-	-	 인문대	 2합동강의실	-	-	-	 기숙사E동	-
박공	 본관	-	-	-	-	-	-	 공대 12호관	 기숙사F동	-
양식	-	-	 교양과정동	 인문대	-	 정보전산원	 농대3호관	 대학원	-	-
진입부 열주	-	-	-	-	-	-	-	 종합정보센터	 제2체육관	 향토생활관
금속재 (청색)	-	-	-	-	-	-	-	 대학원	 공동실험실습관	-
재료	-	-	 출판부	 체육관연구동	 대강당	 기숙사A동	 4합동강의실	 사과센터	 1학생회관	 법학전문대학원

색도장의 금속프레임·진입부의 열주·수평적 요소의 적용 시기는 명확히 파악되나 주변건물들과의 연계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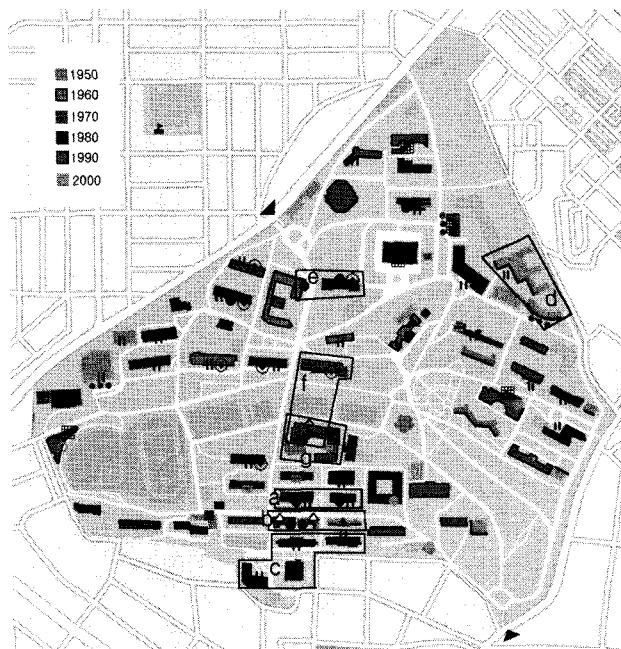
1980년에 준공된 공대 6호관과 7호관(그림 7-a, 표 6-수직구성)은 입면의 색 차이는 있으나 전체 매스의 형태 뿐만 아니라 기둥과 차양 벽(브리즈 슬레이유)에 의한 반복적 패턴, 출입구의 높이강조 등에 의하여 2개동의 입면 디자인이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K대학의 기숙사의 입면은 벽돌과 고전양식의 모티브를 적용하고

있다.(그림 7-b, 표 6-수직구성+벽돌, 표 5-기숙사)

<그림 7-c>의 기숙사 2개동은 1980년대 준공된 건물 <표 5>로써 수직성을 강조하거나 혹은 벽돌의 고유색으로 통일성을 주고 있다. <그림 7-b>의 기숙사 3개동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준공된 건물로 준공된 연대는 차이가 있으나 주변의 건물을 고려하여 디자인의 상호연관성에 의한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7-d>의 기숙사 2개동은 재료 및 형태적 구성방법에 따라 입면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벽돌을 이용하여 입면의 상호연관성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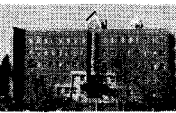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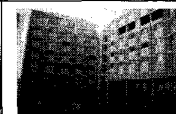
각적 통일성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그림 7-f>의 대학원동 정면부와 공대 12호관은 평면상 근접한 건물이나 실제 대지의 높이 차이에 따라 두 건물을 한눈에 파악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그러나 마주보는 면의 중심부에 박공지붕을 적용하여 중심성을 강조하여 조화를 주고자 하였다. <그림 7-g>의 공대11호관과 12호관<표 5>의 입면은 동일한 벽돌과 석재를 이용한 블록화로 두 건물에 통일성을 주고 있다. <그림 7-e>의 두 건물은 흰색도장(인문대)과 적벽돌(농대1호관)에 의한 마감 재료의 차이는 있으나 출입구의 높이를 강조하여 출입구에 의한 두 건물의 시각적 연계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후반 조형적인 역할로 디자인된 종합정보센터(1998년)와 제2체육관, 향토생활관(표 6-열주, 2000년)의 전면부에 배치된 열주는 실제 캠퍼스 내에서는 건물과 건물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혹은 주변 건물로 인하여 시각적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7><sup>13)</sup>



<그림 7> 주변 건물과의 디자인 요소의 적용현황

<표 6> 디자인요소에 의한 건물의 맥락적 측면의 사례

구분	그림 7-a(수직구성)	그림 7-f(박공지붕)	그림 7-d(수직구성+벽돌)
현황	 공대 6호관	 대학원	 향토생활관
	 공대 7호관	 공대 12호관(배면부)	 기숙사(침성관)

## 5. 결론

국립대학교 교사 입면에 나타난 디자인의 연대별 혹은 분석항목별 특성을 파악하고 입면의 디자인 요소에 의한 주변 건물과의 상호연관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항목을 토대로 각 연대별 입면디자인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1950년대에는 주출입구와 벽면부에 동일한 재료를 적용하고 입면의 분절과 벽돌의 적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60년대에는 주출입구가 입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벽면부와 동일한 재료를 적용하고 있다. 1970년대는 도장마감과 평지붕에 의한 모더니즘 건축양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에는 1970년대와 같이 평지붕에 의한 모더니즘 건축양식은 우세하나 입면에 도장을 마감한 1970년대와는 달리 벽돌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기존의 평지붕<그림 3, 4>과는 달리 원통이나 박공의 형태로 옥상부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대칭성이 없는 비대칭, 분절과 입체구성의 적용이 우세하고 곡선에 의한 유기적 구성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1950년대에는 물대지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70년대의 건물 전체에 적용되었던 평지붕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출입구는 중심부에 위치한 형태가 1960년대 우세하게 적용(100%)되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비중심부에 위치한 주출입구가 우세한 것(81.2%)으로 조사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주출입구가 두면의 모서리부분에 배치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돌출형 주출입구가 75%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함입형 주출입구의 적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50년대의 건물입면에는 분절에 의한 리듬이 우세하게 적용되었고, 1960년대에는 중심성은 있으나 일부 입면을 구성하는 창, 출입구에 의하여 좌우대칭에서 벗어난 비대칭적 균형과 기둥에 의한 반복적 리듬이 우세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분절에 의한 리듬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에는 중심성과 좌우대칭성이 없는 비대칭적 원리(93.7%)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형태적 구성방법에 있어서 평면구성(75%)이 우세하게 적용되었던 1960년대와 달리 2000년대에는 입체구성이 높게 적용(93.7%)되었고 자유로운 곡선에 의한 유기적 구성이 적용(표 5-법학전문대학원)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모더니즘 건축양식이 적용되고 있

13) ▮ 수직, ≡ 수평, ▨ 격자, ● 원통(○ 후면부 위치), ● 출입구의 높이 강조, ▲ 박공(△ 후면부 위치), ● 아치, ●●● 진입부의 열주, ■ 금속재, ▲ 교문(차량)

고 고전양식의 모티브도 70년대에 7.1%, 90년대에는 31.6%, 2000년대에는 12.5%로 건물입면에 적용되고 있다. 1950년대 벽돌과 도장에 의한 입면의 구성은 1960년대의 석재 사용(표 5-본관)으로 입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에 준공된 건물 입면에는 도장에 의한 마감처리가 우세하게 조사되었으나 1980년대부터는 벽돌, 석재, 유리, 금속재가 사용되었고, 1990년대에는 타일이 입면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 대학 건물의 입면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감 재료는 벽돌로 조사되었으며, 적벽돌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2000년대에는 다양한 색의 벽돌을 입면에 적용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셋째, 주변건물과의 디자인의 상관관계 즉 디자인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본 결과는 수직구성과 벽돌을 입면에 적용한 건물들은 캠퍼스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연대별 재료의 변화와 구성방법에 의하여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출입구의 높이강조형이나 고전양식의 모티브인 박공과 아치는 주변 건물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다. 그러나 원통, 청색 도장의 금속재, 진입부의 열주, 수평적 요소는 적용 시기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변 건물과의 연계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의 분석항목을 토대로 연대별 디자인의 적용현황을 조사한 결과<표 4>, 캠퍼스 내 연대별 교사 입면에는 다양한 요소에 의한 입면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의한 유행 경향<표 5>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주변 건물과의 상호 연관성도 고려되어 있다. 그러나 캠퍼스 내 전체 건물에 대한 통일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교사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신축 혹은 리모델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캠퍼스 내에서 건물과 주변 건물과의 공통된 디자인 요소로 통일성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나 한 대학의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건물을 계획하거나 캠퍼스의 물리적 시각적 협소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과 주변 건물과의 상관관계는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고려는 대학건물이 지역을 대표하고 역사적 상징물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교 건물 계획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캠퍼스 내 건물 입면에 디자인 요소가 상호 연관되어 조화와 통일성이 내포된 대학 교사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1. 강철민·김정재·이광영, 대학교 본관 파사드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8호, 2000.8
2. 김정재, 건축의장론, 기문당, 2002
3. 김홍기, 건축조형디자인론, 기문당, 2002
4. 도규환, 건축조형의장, 도서출판 서우, 2002

5. 서희숙, 대학교 본관 파사드에 나타난 연대별 디자인 표현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권 4호, 2010.8
6. 서희숙, 2000년대 초등학교 교사 입면의 디자인 구성요소에 의한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권 5호, 2010.10
7. 신성영, 건축의장론, 구미서관, 2004

[논문접수 : 2011. 03. 30]

[1차 심사 : 2011. 04. 19]

[게재확정 : 2011. 06. 10]